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蓮을 이용한 花器디자인 研究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金 春 梅

2019年 8月

蓮을 이용한 花器디자인 研究

指導教授 朴 炫 映

金 春 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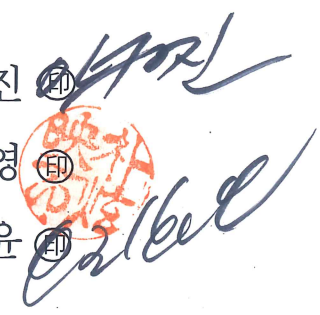
이 論文을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6月

金春梅의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 광
委 員 박 현
委 員 오 창

진
영
윤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19 6月

목 차

Summary	VII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II. 화기(花器)에 대한 理論的 考察	3
1. 화기의 개념	3
2. 화기의 역사	4
III. 현대 花器 作品에 나타난 造形性	13
1. 현대 화기의 종류	13
2. 현대 화기의 재료	17
3. 현대 화기의 형태 및 조형성	23
IV. 연(蓮)의 색상개발	27
1. 연의 일반적 고찰	27
2. 연의 염색	30
3. 연의 염색 결과 분석	35
V. 시작품 제작연구	36
1. 제작 배경	36
2. 작품 제작 과정	38
3. 시작품 설명	39

VI. 결 론57

참고문헌59

도 목차

도 1. 이한복 동리가경	8
도 2. 옥당부귀	8
도 3. 삼국시대 삼존형식	8
도 4. 백제시대 맞귀향아리	8
도 5. 백제시대 향아리	8
도 6. 신라시대 수막새기와	9
도 7. 고려시대 청자	9
도 8. 고려시대 백자	9
도 9. 고려시대 녹자	9
도 10. 고려시대 상감청자	10
도 11. 수생화도 수덕사	10
도 12. 수월관음도 버드나무 정병	10
도 13. 책가도	10
도 14. 화조도	10
도 15. 문자도	10
도 16. 조선시대 혼례식	10
도 17. 일본화기 1	11
도 18. 일본화기 2	11
도 19. 유럽화기	11
도 20. 미국화기	11
도 21. 현대 도자 화기 수반	12
도 22. 현대화기 나무틀	12
도 23. 현대화기 석재	12
도 24. 현대화기 꽃병	12
도 25. 꽃병	15
도 26. 향아리	15
도 27. 수반	15

도 28. 콤포트	15
도 29. 바구니	16
도 30. 변형화기 1	16
도 31. 변형화기 2	16
도 32. 변형화기 3	16
도 33. 나무	20
도 34. 대나무	20
도 35. 한지	20
도 36. 지승	20
도 37. 초경	21
도 38. 양모	21
도 39. 도자기	21
도 40. 유리	21
도 41. 플라스틱	22
도 42. 금속 1	22
도 43. 금속 2	22
도 44. 석재 1	22
도 45. 석재 2	22
도 46. 한지/섬유 (작가 : 장미나)	25
도 47. 천 (작가 : 김숙현)	25
도 48. 천 (작가 : 나수자)	25
도 49. 초경 (작가 : 김춘매)	25
도 50. 도자기 (작가 : 심정렬)	26
도 51. 금속 (작가 : 김춘매)	26
도 52. 유리 (작가 : 박윤희)	26
도 53. 연꽃	27
도 54. 연잎	27
도 55. 연근	27
도 56. 색상 개발	38

도 57. 디자인 개발	38
도 58. 염색 천	38
도 59. 재단	38
도 60. 바느질	38
도 61. 나무 속통	38
도 62. 배접	38

표 목차

표 1. 염료추출 및 염색방법	30
표 2. 연의 염색 과정	31
표 3. 연꽃의 염색 색상표	32
표 4. 연잎의 염색 색상표	33
표 5. 연근의 염색 색상표	34
표 6. 작품 제작 순서	37

그림 목차

그림 1. 연꽃(1) 도면	39
그림 2. 연꽃(2) 도면	41
그림 3. 연꽃(3) 도면	43
그림 4. 연잎(1) 도면	45
그림 5. 연잎(2) 도면	47
그림 6. 연잎(3) 도면	49
그림 7. 연근(1) 도면	51
그림 8. 연근(2) 도면	53
그림 9. 연근(3) 도면	55

작품 목차

작품 1. 연꽃(1)	40
작품 2. 연꽃(2)	42
작품 3. 연꽃(3)	44
작품 4. 연잎(1)	46
작품 5. 연잎(2)	48
작품 6. 연잎(3)	50
작품 7. 연근(1)	52
작품 8. 연근(2)	54
작품 9. 연근(3)	56

A study on Design of flower - bowl using Lotus

Kim Chun Mae

Industrial Art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Hyun Young

Summary

Korean flower arrangement is important for works that allow nature and human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o preserve nature as it is. Rather than artificially creating lines one by one, it saves the inspiration it feels in its original state, and places great importance on space. Space doesn't mean emptiness but beauty of hollow, showing the meaning of real space.

Ceramics cradling flowers is essential part of flower arrangement, it acts beyond its original use by showing wide variety of variation and ritual things to contain desire and pray of human, as a medium of expressing emotions.

Nowadays use of eco-friendly materials like natural dyeing fabrics grows naturally and its demand goes up as colors of natural dyeing fabrics mix together with perfect harmony. So as a natural dyeing fabrics diversify, studies of new materials and ceramics progress. This trend penetrates our life and draw attention as a cultural item.

This trend extended to combining ceramics with inherited traditional culture. Designing ceramics and finding new materials is meaning full meeting today's

demand.

So this study is about designing flower ceramics to express original Korean beauty and designing it as a work of showing visual delight and emotional stability.

Its contents and study method is can be summarized as a follow.

First, consider the concept of flower ceramics and the theory of history.

Second, look at the types and materials of modernizers, and look at their form and shape.

Third, the data on the origin of lotus and the use of lotus are investigated and compiled.

Fourth, dye tests are conducted by concentration of various saline agents using lotus, lotus flower, lotus leaf and lotus root, the color development material of louts.

Fifth, the material of cloth uses five materials: silk, cotton, ramie and hemp, which are animal fibers, silk and vegetable fibers.

Sixth, sewing uses ssamsol technique as a sewing method, expression technique involves carving various colored fabrics with dyed colors, and embroidery technique with silk to express it as ssamzil, seep and groove.

Seventh, the basic frame making of flower ceramics is made with wo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tus flowers bloom in the mud, but are always considered sacred because they have clean and noble figures, and they are a symbolic flower of Buddhism from ancient times, meaning the universe itself, and louts contain Buddhist principles in each part. Lotus seed is a symbol of immortality by budding and blooming when it is planted after a thousand years.

Second, in the color development of lotus, materials used three kinds of lotus flowers, leaves, and roots, the materials of cloth were silk, cotton, mineral, ramie, and sambe, and the saline material used aluminum, Chosan-dong, and first iron of chloride.

In lotus flowers, the red color of lotus was not dyed, the color of yellow line of 2.5Y and 5Y in aluminum salts, the color of the yellow line of 2.5Y and 5Y in Chosan-dong, and the color of the blue-gray of the first season 2.5Y, 7.5Y and 10Y of Chloride.

In lotus petals, the colors of yellow sequence 5Y, 7.5Y and 10Y in aluminum salts, the greenish colors of 2.5GY, 7.5GY and 5Y in Chosan-dong, and the green colors of the first and 5Y classes of chloride were colored.

In Yeongeun, colors of yellow sequence 2.5Y, 5Y and 10Y were found in Chosan-dong in the colors of 2.5Y, 5GY, 10GY, and 10YR in the blue of 2.5Y, 7.5YR, and 10YR in the first season of Chloride.

Third, in the development of flower ceramics design, the form of flower ceramicsarm was the subject of lotus flowers, leaves, and roots, and by using the technique of cubes, leaves and roots as cubes, the natural color of silk, cotton, minerals, ramie, and sambae, and the texture felt in each material.

Fourth, these development of flower ceramics design can feel visual pleasure and emotional stability through the potential value of purifying dry emotions in complex modern society when combined with flowers.

It is also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better flower ceramics-gear design that can mingle with flowers by dyeing louts, a natural material, into cloth.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 꽃꽂이는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면서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린 작품을 중요하게 여긴다. 선(線)을 하나하나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원래 상태에서 느끼는 영감을 살리고, 공간을 매우 중요시한다.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비어있는듯하면서 그 속에는 여백(餘白)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또한 꽃을 품은 화기는 꽃꽂이 공예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쓰임새를 반영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고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도 인식되며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작용을 하고 있다.

요즘은 친환경적 소재인 자연염색의 소재사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염색의 자연적소재아 색상이 어우러짐으로써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자연염색의 재료는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자연적인 소재와 화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 문화상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 고유성에 대한 관심은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개발에 이어지고 있으며, 화기디자인과 소재개발은 전통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관심과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료의 선택에 있어 자연적이며, 서구에서 시작된 기술발전과는 다른 동양적 소재인 연꽃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연의 염색을 이용하여 색채를 개발하여 자연의 색과 현대적 단순함이 어우러지는 한국의 고유미를 일상의 생활 안에서 화기(花器) 디자인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기하학적 화기의 조형적 작품으로 디자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자연 친화적 소재인 연에서 추출한 염료로 색채를 개발하고, 염색한 천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감의 색채표현과 화기형태를 표현하고, 현대적 단순함과 한국의 고유한 미의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형적 화기를 디자인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한다.

- 1) 화기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한 이론을 고찰(考察)한다.
- 2) 현대화기의 종류와 재료를 살펴보고, 형태 및 조형성에 대해 고찰한다.
- 3) 연(蓮)의 일반적 고찰(考察)은 연에 대한 유래와 연의 활용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 정리한다.
- 4) 연의 색상개발 재료는 연꽃, 연잎, 연뿌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염제의 농도별 염색실험을 진행한다.
- 5) 천의 재료는 동물성 섬유인 명주와 식물성 섬유인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로 5가지 재질을 사용한다.
- 6) 바느질은 재봉 방법으로 싹솔 기법을 사용하고, 표현 기법은 염색된 다양한 색상의 천을 조각 잇기를 하고, 명주실로 자수기법을 이용하여 싹질, 시침질, 홈질로 표현한다.
- 7) 화기의 기본 틀 제작은 삼나무를 사용한다.

Ⅱ. 화기(花器)에 대한 理論的 考察

1. 화기(花器)의 개념

인류가 미(美)를 표현하게 된 동기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생활하면서 그 아름다운 색채를 자기 것으로 간직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며, 자연을 그대로 아름다운 색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화기는 꽃을 꽂아 주로 실내에서 장식품으로 활용되며, 수분을 공급하여 꽃의 아름다움을 오랜 기간 동안 볼 수 있게 한다. 화기는 공간과 꽃과의 조화를 이루어 공간 예술적인 작품으로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화기는 꽃꽂이의 소재, 형태, 장소 등에 따라 자유자재로 표현될 수 있으며, 꽃을 만지는 작가의 취향에 따라 더욱 뚜렷하고 다채롭게 표현된다.

화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간 장식의 소품으로써 디자인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며, 디스플레이된 배경으로도 자연스럽게 삶의 장식이 된다. 화기의 꽃꽂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 메마른 정서를 순화하고, 자연을 말할 수 있는 작은 공간,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한다. 화기는 꽃을 꽂는 요기(尿器)로써 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 소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기의 종류로는 유리화기, 도자기 화기, 대나무 화기, 에보나이트 화기, 셀룰로이드 화기, 플라스틱 화기, 바스켓, 금속화기 등 다양한 재료와 모양으로 만들어진 화기들이 있다. 화기는 용도상으로 꽃병, 수반, 콤포트(Compote), 변형 화기로 구분되며, 공간에 따라 벽에 장식하거나, 생활 가구 공간을 이용한 장식, 아무 곳에서도 자유롭게 장식할 수 있다. 이러한 화기 중에서도 자기(磁器)는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꽃들과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명(器皿)이 많고, 형태에 따라 병(瓶), 호(壺)¹⁾, 발(鉢)²⁾, 반(盤)³⁾ 등 다양하게 나뉜다.

1) 입이 작고 중배가 부른 단지의 모양

2) 바리떼 (스님의 밭그릇) 뜻을 나타내는 쇠금

3) 소반, 쟁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화기는 재료와 모양의 조화로움으로 꽃을 꽃는 용도와는 달리 관상적(觀賞的)인 기능성(技能性)으로 독자적인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장식품 또는 실내 공간 소품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화기(花器)의 역사

화기(花器)의 역사적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옛 고서적이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신에게 제(際)를 올릴 때는 꽃을 제단에 꽂아 놓았다는데,⁴⁾ 이는 모든 사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샤머니즘’(shamanism)⁵⁾ 사상으로 토착 신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조선 시대에 단군신화(檀君神話)나 제천행사 또는 무당의 굿에서 볼 수 있는 솥대는 신시시대(神市時代)의 신수사상(神樹思想)으로 이어지며, 나중에는 제단 위의 병에 꽃을 꽂아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되었다.

화기(花器)는 장식적인 용기보다 제례용기(祭禮用器)로 사용되었다. 특히, 불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와 전파되면서 융성하였고, 그에 따른 화병이나 화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화기는 꽃을 꽃는 용기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고려시대 귀족문화에 일원으로 집안 장식용이나 아니면 항상 꽃을 꽂아두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화병의 모양이 매우 다양했음을 민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무호 이한복의 동리가경(東籬佳景)(도 1)과 옥당부귀(玉堂富貴)(도 2)의 민화에 꽃을 꽂은 화기가 있으므로 추측할 수 있다.⁶⁾

4) 장미나. 『前掲書』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p5

5) 시베리아 북부의 원주민 사이에서 시작되어 극동지방으로 전해진 원시종교, 무술(巫術)

6) 김선옥 외 “화훼장식 기사” 도서출판 인아. 2011년 p162

1) 삼국시대 화기

삼국시대는 부족국가로 제례 의식을 중요하게 거행하여 백성들의 응집력을 가져왔으며, 제례 의식의 꽃꽂이 형식이 정해져 기명도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불교가 널리 전파되어 불교 의식이 성행하였는데, 이때 부처님께 불사하는 의식에서 꽃, 향, 초, 차와 함께 필수 의장(儀裝)으로 화기가 상징되고 그 형식으로는 삼존 형식(三尊形式)이 취해졌다(도 3).

삼존 형식(三尊形式)이란 화기 중앙에 직립한 가지를 꽃고, 좌우로 반개(半開)한 꽃을 꽃아 세 가지가 하나로 통일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이 형식으로 꽃을 꽃으면 화병의 형태는 목 부분이 좁아지면서 몸통 부분이 넓게 퍼져있다.⁷⁾

고구려는 지리적 조건으로 지형, 기후, 환경에 따라서 화병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고분벽화의 쌍영총(4~5세기)과 안악2호분 비천상(5~6세기)에서 각각 병과 수반에 연꽃과 연꽃 줄기의 선이 대단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선(線)의 미(美)를 표현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에 불교의 전파로 제례 의식에서 꽃을 꽃는 삼존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⁸⁾

백제 시대의 토기는 한나라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경질 토기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서울 구의동 백제초기 고분에서는 맞귀항아리(도 4)가 출토되었는데, 맞귀항아리는 독과 같이 긴 몸에 밑은 편평하고 목은 거의 없이 몸통 부분이 밖으로 말리듯이 벌어지고 양측에 넓은 손잡이가 부착된 것이 특징이다.⁹⁾

백제 시대의 대표하는 곧은 입 항아리(도5)는 짧고 곧은 입 부분과 풍만한 몸체가 특징이다. 토기는 장식성이 강하지 않고 단순하며 색조, 유려한 선 등을 통하여 볼 때 백제인은 보다 절제되고 간결함을 추구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항아리는 꽃을 꽃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 시대의 수막새 기와 (도 6)를 보면 전 부분이 넓게 벌어진 항아리 형태에 꽃을 꽃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에 특징은 1000℃ 이상에서 구운 것으로 단단한 석기 질이며 물레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어서 그 형태도 다양하다.¹⁰⁾

7) 이희정, “한국의 야생화 이미지를 형상화한 화기디자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3, p6

8) 김선옥 외 “화훼장식 기사2011” 도서출판 인아. p157

9) 장미나. 『前掲書』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p5

10) 장미나. 『前掲書』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p5

2) 고려시대 화기

고려시대의 공예기술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자기이다. 고려자기는 중국 송나라에 영향을 받아 다시 고려인의 독창력을 발휘하였다. 자기에는 청자(도 7), 백자(도 8), 녹자(도 9)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청자는 가장 우수했다.

고려 시대의 화기 비색청자는 아름답고 정교한 절품이다. 상감청자는 당호, 모란, 운학 등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청자는 섬세하고 실용성과 감상의 조화는 조형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전형적인 화기이다(도10).

이 시대는 불교와 귀족문화의 전성기로 불전공화(佛殿空花)¹¹⁾ 양식이 체계화 되었고, 궁중의 각종 행사에 꽃을 사용하고 관련된 관직이나 사서나 시가에 나와 있다. 수덕사의 대웅전의 수생 화도(도 11), 서구방의 수월관음도의 정병에 꽃혀있는 버드나무(도 12)에서 볼 수 있다.

3) 조선시대 화기

조선 시대의 화기는 송유억불 정책에 따라 고려 때 귀족문화가 쇠퇴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민중적인 조형으로 바뀌었다.

꽃꽂이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간결하고 깨끗함을 강조되었으며, 소박하고 담백함을 보였다. 화병은 장식용으로 제작되었으며 특별한 기명(器名)도 없다. 실용성을 강조하다 보니 꽃을 꽂을 수 있는 용기이면 꽃을 꽂았다.¹²⁾

이는 민화의 소재로 화병이나 화초도, 문방구 등이 그려져 있어 상징성을 강조했다. 화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그 형태나 용도와 관계없이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화병도 주병형 병으로 크기로는 책가도(도 13), 화조도(도 14), 문자도(도 15) 및 혼례 의식(도 16), 제례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백자인 달 향아리는 눈처럼 흰 바탕색과 둥근 형태가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극치를 보여주는 예술품 향아리이다. 백자 향아리가 궁중 의례 때 꽃꽂이 병이나 술병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11) 불전공화: 불전에 그 계절에 핀 꽃을 바침. 또는 그 꽃

12) 인터넷 『naver.com』 혼용.

4) 현대 화기

현대 화기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꽃 소비의 증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왜곡된 일제사관의 잔재로 우리 화기의 역사적 존재 자체가 망각되었지만 이런 와중에 전통 꽃꽂이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일반인에게는 화도(花道)로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현대의 미감(美感)을 수렴하면서 문화, 예술 분야에 생활의 여유와 질서를 되찾아갔다. 한국 전통 꽃꽂이는 각 나라의 현대적인 양식과 혼합되어 독특한 양식으로 우리의 화기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70년까지 일본을 통해 전해진 미국의 서양식 디자인의 도입 이래 꽃꽂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절화 장식물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현대적인 유럽식 디자인의 도입은 국내 절화 장식의 표현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일본: 도 17, 일본: 도 18, 유럽: 도 19, 미국: 도 20).¹³⁾

현대화기는 재료의 소재에 따라 다양하게 인테리어 소품과 공간 미술의 장식으로 활용되고, 또 작가의 취향과 표현에 따라서도 나무틀, 석재, 일반 병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조형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도 21, 도 22, 도 23, 도 24).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한국의 꽃 예술은 화기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자리로 매김 하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화기는 단순한 꽃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어떤 가치가 담겨있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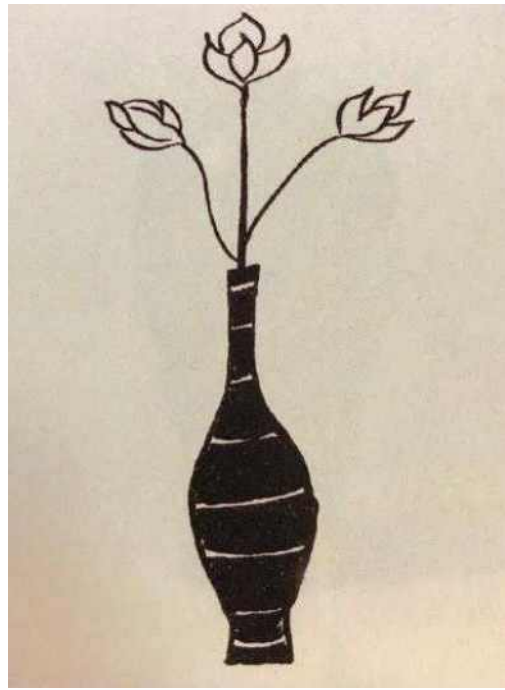
13) (사)한국꽃예술작가협회. 2004. 『화훼장식 A to Z』 p85



도 1. 이한복 동리가경



도 2. 옥당부귀



도 3. 삼국시대 삼존 형식



도 4. 백제시대 맞귀항아리



도 5. 백제시대 항아리



도 6. 신라시대 수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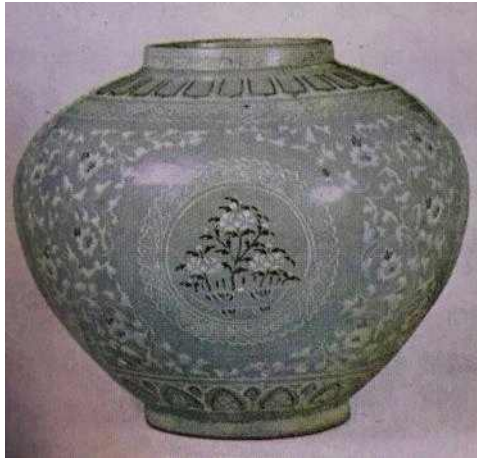
도 7. 고려시대 청자



도 8. 고려시대 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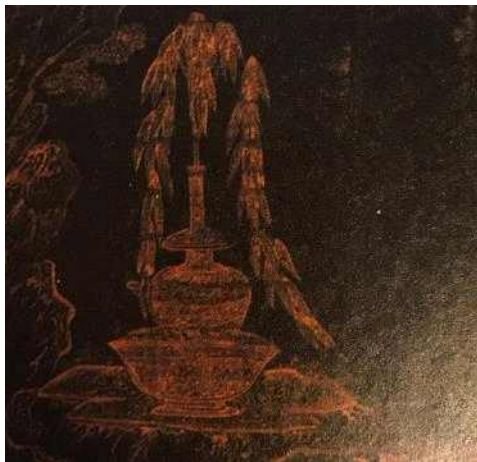
도 9. 고려시대 녹자



도 10. 고려시대 상감청자



도 11. 수생 화도 수덕사



도 12. 수월관음도 버드나무 정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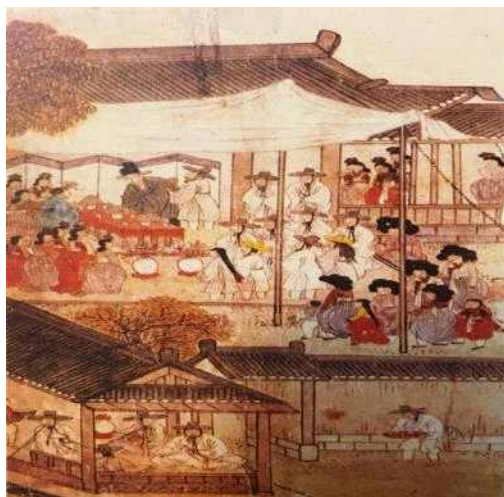
도 13. 책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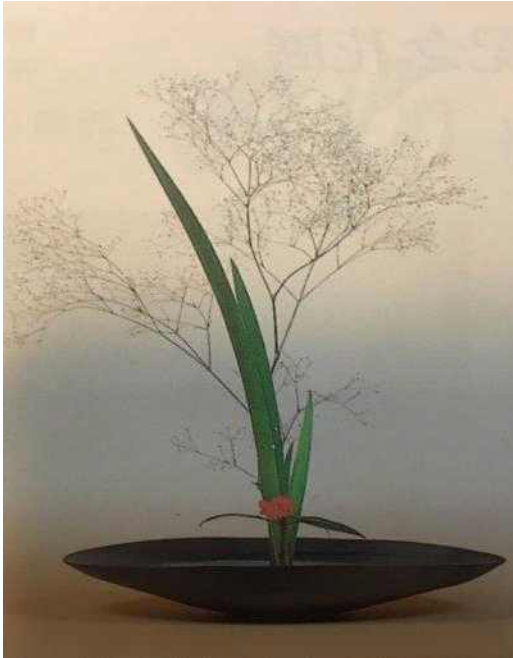
도 14. 화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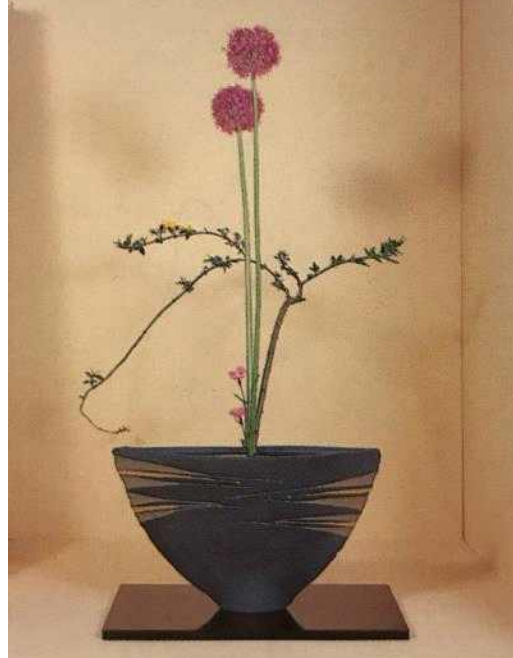
도 15. 문자도



도 16. 조선시대 혼례식



도 17. 일본화기 1



도 18. 일본화기 2



도 19. 유럽화기



도 20. 미국화기



도 21. 현대 도자 화기 수반



도 22. 현대화기 나무틀



도 23. 현대화기 석재



도 24. 현대화기 꽃병

Ⅲ. 현대 花器 作品에 나타난 造形性

1. 현대 화기의 종류

화기는 화훼산업의 발전으로 조형 디자인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꽃병과 수반 형태로 나누어진다. 꽃병과 수반의 재료는 도자기, 유리, 식물성나무 바구니, 금속용기, 플라스틱용기, 고무용기 등이 화기로 활용되고 있다.

1) 꽃병 (vase)

꽃병은 꽃을 담는 개방된 그릇이며 도자기, 유리나 알루미늄, 황동, 동,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 등의 다양한 재질이 있다. 나무도 티크와 같은 건부 저항성 나무를 사용하거나, 평범한 나무에 방수 코팅을 하여 꽃병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꽃병은 흔히 장식적이며, 흔히 절화를 담는 데 사용된다.

꽃병은 대개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꽃병의 밑 부분은 둥글납작하거나, 평평하거나, 손잡이가 있거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특히, 꽃병은 화재(花材)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연출하기가 쉬워서 예부터 많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가깝게 보기에 편안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동적이기 때문에 꽃꽂이에 있어서 화기의 선택이 중요하다(도 25).

항아리는 입구가 좁고 배가 부른 질그릇의 일종이며, 입구와 목 부분의 특징에 따라 입 큰 항아리, 목 긴 항아리, 목 짧은 항아리 등으로 나뉜다. 항아리 꽃꽂이는 꽃을 화기 안에 던지는 듯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꽂으며, 화기의 모양과 소재에 따라 꽂는 형식이 매우 다르다(도 26).

2) 수반

높이가 낮고 폭이 넓으며, 모양은 사각형, 타원형, 삼각형, 반달형, 접시형, 콤포트(compote) 바구니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되고 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이나 대접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용기 중에 꽃을 꽂을 수 있으면 수반을 대용으로 활용된다.

수반은 참봉을 이용하여 꽃을 꽃는데 꽃이나 나무가 있는 호숫가의 전경, 넓은 들, 낮은 언덕의 풍경 등을 묘사하기에 적합하다(도 27). 콤포트(compote)는 다리가 달린 일종의 수반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는 화기로써 형태나 색채상 변형이 크므로 꽃꽂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도 28).

바구니는 형태, 색상, 크기 등 다양하며, 튼튼하고 쓰임새가 많다. 조금은 거친 면이 있으나 취급하기가 쉽고 서민적이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꽃꽂이 표현이 잘 활용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된다(도 29).

3) 변형하기

일정한 형태에 구애됨이 없이 소재의 특성을 살린 변형된 화기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기존 화기인 수반, 병, 콤포트 등 화기의 모양이나 크기를 변형시켜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현대화기는 주어진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비사실적(非事實的)묘사를 줌으로써 추구하는 표현도 기존의 꽃꽂이 모습과도 확연히 다르게 보인다.

생활 주변에서 꽃을 꽃을 수 있는 용기는. 향아리 뚜껑, 낫그릇, 고무, 철제, 유리 그릇, 목기 등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취향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여 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도 30, 도 31, 도 32).



도 25. 꽃병



도 26. 향아리



도 27. 수반



도 28. 콤포트



도 29. 바구니



도 30. 변형 화기 1



도 31. 변형 화기 2



도 32. 변형 화기 3

2. 현대 화기의 재료

현대 화기의 재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 고무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나무껍질, 대나무, 한지, 초경, 시멘트, 지승, 금속, 천 등이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작가의 생각과 화재(花材)에 따라서 그 표현형태가 많이 달라진다. 화기의 디자인은 어떤 공간, 물리적, 시각적 분위기를 잘 살려야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한다. 현대화기는 친환경적, 친자연적 그리고 친밀성이 많이 필요하다.

1) 식물성

① 나무(wood)

나무는 실용성과 자연미가 있어 요즘 각종 화기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장식성이 강하여 벽과 공간장식 등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도 33).

② 대나무

대나무는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오브제(objet)를 만들고, 꽃을 꽂는 화기뿐만 아니라 양모, 한지, 지승 등의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화기 자체의 장식성을 높인 화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도 34).

③ 한지

우리나라에서 종이 가 맡았던 가장 큰 역할은 ‘공간형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닥나무로 만든 한지는 천연염료로 물들여 합지로 만든 골격에 덧발라 문양을 새겨 넣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깃들여진 담담한 색 조화의 질감은 한국적 미를 보여주고 공예로서 손색이 없다.

색상과 문양이 다양한 한지가 지닌 부드러움과 따뜻함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생활용품에 적합한 소재이며, 실용성과 장식성이 뛰어나 관광공예품으로도 평가받고 있다(도 35). 종이로 꼬아 만들었다는 뜻으로 ‘소역개’라 불리던 한지 공예품은 현존하는 최고의 유물이다.

지승공예는 무늬를 엮는 방법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색지나 검은 물을 들인 종이와 함께 넣어 엮기도 한다. 무늬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갖가지

형태를 만들어 낸다(도 36).

④ 초경

싸리, 왕골, 짚 등은 줄기나 뿌리를 가공하여 사용하는 공예를 말한다(도 37).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옛 가구나 공예품 등을 살펴보면 전통문양이나 이미지를 담고 있다.

2) 동물성

펠트(felt)¹⁴⁾는 유목민들이 보온을 위해 사용하던 양모를 압축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천연소재인 양털을 사용하였으며, 현대에 와서 입체적인 형태로 작품을 많이 해오면서 실생활에 용품과 화병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도 38).

3) 광물성

① 도자기

도자기는 도기(陶器), 자기(瓷器), 사기(沙器), 토기, 질그릇을 통틀어 말한다. 토기와 도자기는 점력(粘力)을 갖춘 가소성(可塑性)이 있는 질[胎土]로 형태를 만들고 이것을 불에 구워낸 것이다. 토기를 만들려면 점력을 가진 흙이면 대체로 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기를 구워내는 화도(火度)는 600℃ 이상에서 800℃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 1,00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현대에서 꽃을 꽃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이다.

도기는 900~1,000℃ 내외의 화도에서 산화번조(酸化燻造)¹⁵⁾ 위주로 구워내며, 표면에 유약(釉藥)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환원번조(還元燻造)¹⁶⁾ 가마의 온도가 1,100℃ 이상일 때, 빨감을 많이 넣고 산소를 막아 불완전연소가 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기(瓷器)는 점력을 갖춘 순도 높은 백토(白土: 高嶺土), 즉 질(胎土: 陶土·陶石)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장식질(長石質)의 유약을 입혀 번조(燻造)하여 그 조직이 치밀한 것을 말하며, 이를 백자라고도 한다(도 39).¹⁷⁾

14) 찬물과 뜨거운 물, 세제로 압축시켜 만들

15) 산화번조(酸化燻造): 가마에 불을 댈 때 산소를 많이 들여보내는 방법. 결과, 토기는 황색·갈색·적색을 띠며, 청자와 백자는 황색이나 갈색을 머금게 됨.

16) 환원번조(還元燻造): 산화번조와 반대 방법

② 유리(glass)

유리의 특성은 모양이나 크기, 형태의 선택에 범위가 아주 넓다. 유리는 투명체로서 색채효과에 유감없이 어필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으며, 표면 반사가수반되고 빛이 굴절한다. 빛을 통과하는 성질 때문에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부수되고 자연 속의 미학이 형성된다(도 40).

③ 플라스틱(plastic)

최근 들어 플라스틱 화기는 단순히 꽃을 담는 도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오브제(objet)로 인정받고 있다.

플라스틱은 투명체의 역할을 뛰어넘어 강렬한 색감으로 유리, 놋쇠, 세라믹 등의 화기와 같은 외양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화기를 새로운 분위기로 변신하기에 유일하게 활용하게 된다.

흔히 회벽이라고 부르는 핸드코트는 회반죽처럼 생긴 성분이며, 손으로 직접 곁을 내면서 플라스틱 화기에 핸드코트를 바르고 모자이크 타일을 붙이면 손맛이 배어든 독특하고 예쁜 화기를 완성할 수 있다(도 41).

④ 금속(metal)

금속은 일반적으로 화기를 만드는 금속재료의 종류는 청동, 구리, 은, 백랍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금속의 특성에 따른 구성은 서로 다른 꽃과 색상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화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도 42, 도 43).

⑤ 석재(stone)

돌을 재료로 한 용기는 자연미가 있으며, 소재의 질감이 드러나 고급스럽고 자연미와 중량감이 풍부하고 안정감이 뛰어나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도 44, 도 45).

17) 「강진 사당리 요지 출토 청자와」 최순우, 『미술 자료』 9, 국립중앙박물관, 1964)



도 33. 나무



도 34. 대나무



도 35. 한지



도 36. 지승



도 37. 초경



도 38. 양모



도 39. 도자기



도 40. 유리



도 41. 플라스틱



도 42. 금속 1



도 43. 금속 2



도 44. 석재 1



도 45. 석재 2

3. 현대 화기의 形態 및 造形性

현대사회는 특별하고 희소성이 높고 사람들의 이용을 집중시키는 산업예술에 관심을 둔다.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 19세기 전반까지 건축뿐만 아니라 실내장식이나 가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장식과 문양이 많은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르네상스부터 시작하여 로코코에 이르러 종결되는 장식적 체계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점차 사라지고 그 후로 간결하게 정리된 심플한 형태가 나타남으로써 문양이나 장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대담하게 직선을 도입하는 등 오늘날의 실내장식, 건축, 가구 등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잘 드러나고 있다.¹⁸⁾

현대는 쓰임새에 따라 생산된 기능 품은 향상된 가치관으로 더욱 다양한 재료와 독창적인 형태로 디자인되고 있다. 화기는 예로부터 꽃과 함께 장식성과 기능성을 갖춘 화기로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 화기는 재료의 다양성과 작가의 감수성과 창작 등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표현으로 새로운 조형성 양식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공간을 표현하는데 조형이 간결한 형태의 양식으로 재료의 쓰임새에 따라 질감, 색감, 형태의 디자인에 의해 조형성을 재구성하고 현대인의 실내공간에 장식적인 미가 부각되고 있다.

현대의 화기는 정형화되지 않고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 장식으로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꽃을 꽂는 용도보다 그 자체 만으로도 실내 인테리어로 잘 어울리게 된다. 현대화기는 조형성과 장식적으로 표현이 자유로워져 정서적이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한지, 천, 초경, 도자기, 금속, 유리등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현대 화기에서 식물성으로 사용되는 화기는 섬유 자체의 질감을 표현하며 자연적인 느낌이 들고 있다. 특히, 한지는 염색을 하여 가볍고 부드러우며 원하는 형태나 색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도 46), 또 천으로 활용된 화기는 다채로운 색상표현으로 천 자체의 고유한 바탕색이나 색을 특징 있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으로 서로의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密言이기도 하다(도 47, 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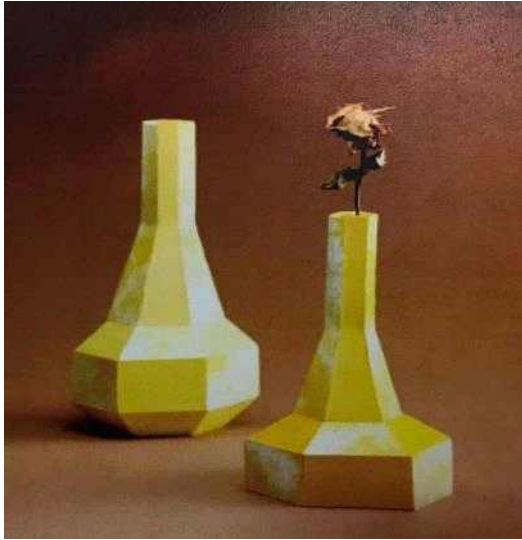
초경은 자연미를 살리고 그 느낌 그대로 표현과 연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18) 김영기, 1991. 「한국인의 조형 의식」, 창지사, p343

고 있고, 작가의 의도대로 질감이나 식물 섬유 등의 독특한 미적인 감성을 표출할 수 있다(도 49).

광물성 도자기는 점토를 구워서 점토의 질감을 유약과 안료에 의해 표현되는 색채가 제한되지만, 화기나 공간적 실내장식으로 그만한 용기가 없다. 한국적인 달 항아리는 운치가 있으며 어느 공간이나 잘 어울리면서 단아한 전통미가 있다(도 50). 금속인 경우는 딱딱하고 견고하며 요즈음 형태나 변형이 다양해져 모던한 느낌과 표현이 자유로워 화기의 질감으로 사용된다(도 51).

유리 화기에서는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용기 형태로 실내장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도 52). 이런 다양한 화기는 제각기 형, 색,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 노출해 더 조화롭게 꾸밀 수 있으며 창작에 있어 조화미나 화기 자체만으로도 주위 공간과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현대화기는 건축물에 실내장식이나 인테리어 한축을 이루면서 장식과 실용적이고 필요한 조형적 작품으로 우리의 정신적 삶에 풍요로움을 한층 더 부각하고 있다.



도 46. 한지/섬유 (작가 : 장미나)



도 47. 천 (작가 : 김숙현)



도 48. 천 (작가 : 나수자)



도 49. 초경 (작가 : 김춘매)



도 50. 도자기 (작가 : 심정렬)



도 51. 금속 (작가 : 김춘매)



도 49. 유리 (작가 : 박윤희)

IV. 연(蓮)의 색상개발

1. 연(蓮)의 일반적 考察

1) 연의 일반적 特徵

연(蓮)은 수련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수생식물로 우리나라 전국 연못이나 논밭에서 볼 수 있다. 국제학명은 *Nelumbo lucifera* Gaerth 며, 꽃말은 결백, 신비, 청정, 군자 등이고 불교의 상징으로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번뇌를 벗는 고귀한 식물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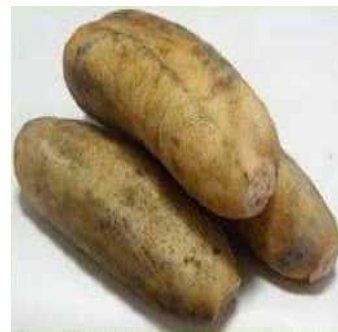
수초의 길이는 1.5m정도 자라며, 줄기는 연녹색이고, 잎은 근경으로부터 굽은 엽병이 원추형, 방패 형 등 가시모양의 돌기가 있으며 편편하다. 꽃은 여름이 짝이 갈 무렵 7~8월이 되면 한겨울 동안 진흙 속에서 뿌리를 감추었다가 연근에서 꽃대를 뻗어서 색상을 연분홍색, 붉은 색, 백옥 같은 하얀 색 꽃을 피운다. 근경은 가늘고 길며, 원주형으로 많은 마디가 있고 또 물밑 땅 속에서 옆으로 뻗는다. 늦가을이 되면 근경이 비대해져서 연근을 형성하고, 예부터 관상용, 약용, 식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도 53, 도 54, 도 55).



도 53. 연꽃



도 54. 연잎



도 55. 연근

2) 연의 유래

연의 원산지는 인도나 이집트로 중국을 거쳐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는 문헌의 기록은 없다. 우리나라 연은 분홍, 붉은색, 흰색의 대형 종으로 불교 전래 이전에 자생하여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합하도록 토착화 된 품종으로 추정된다.¹⁹⁾

우리나라에는 통상 연이 불교의 전래에 따라 아시아에 활발히 보급되면서 널리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기 초(王其超)와 장 행언(張行言)의 ‘연속 세계분포도에 의하면 세계 연의 분포지에 우리나라도 속하고 있어 고구려 소수림왕(372년) 때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연이 심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삼국사기」의 신라 마립니사금 12년 5월 (123년 5월) “금성 동쪽의 민가가 땅이 꺼져 내려앉아 못이 되더니 거기에서 부거(芙蓉)가 싹터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보아 연은 불교 전래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벽화에도 많은 연이 등장하고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²⁰⁾

삼국시대 연이 재배되었던 대표적인 유적은 공주 박물관에 소장된 「백제시대의 석연지」로 대통사지(大通寺址)에서 옮겨 놓은 것으로 금당(金堂) 앞 양측에 일좌(一座)씩 놓고 연을 심었던 것으로 여겨진다(國立公州博物館, 1992).

8세기경 통일신라시대의 법주사 석연지(法住寺石蓮池)는 8각의 지대석 위에 3단의 궤를 만들고 다시 복연(覆蓮) 1층을 첨가하고 그 위에 구름무늬가 장식된 중간 석을 끼워서 연지를 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부여의 석조(石槽)는 [석연지]로 부르기도 하며 표면에 연잎을 양각한 흔적이 있다. 안압지 발굴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문무왕 14년(674) 2월에 ‘궁내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과 함께 연 식재대가 나타나 연이 삼국시대부터 널리 재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으로 유교가 국교로 바뀌고 유교에서는 세속에 물들거나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君子를 가장 흠모하게 되는데, 연이 군자의 꽃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은 북송의 성리학자인 주 무숙(周茂淑)의 119자로 된 애연설로 연이 지닌 덕을 잘 나타내고 있어 고

19) 고 경식 『한국 식물검색도감』 여름. 아카데미서적. 1991. p34.

20)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p165.

금을 통한 명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연의 부위마다 불교의 원리를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활짝 핀연잎은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하고, 엽병(葉柄)은 우주의 축을 의미하며, 연근의 아홉 개의 구멍은 구품(九品)을 말하고, 세 개의 뿌리는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를 뜻하며, 연의 씨는 천년이 지나도 심으면 꽃을 피운다 하여불생불멸(不生不滅)을 상징한다, 더욱이 연꽃은 인간이 동경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상징한다.²¹⁾

21) 출처: 무안군청 홈페이지

2. 연의 염색

연은 인류문명과 함께 역사에 등장한 유서 깊은 꽃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 각지에서 쓰이고 있다. 한국의 회화에서 연은 꽃, 줄기, 잎 모두 전통적 주제로 활용하였으며, 생태적 속성이 불교의 이상과 부합되어 맑고 고결한 기품으로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동양적인 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연을 통해 다양한 형상을 디자인하고,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된 화기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연꽃, 연잎, 연뿌리로 색상을 개발한다.

연의 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 문강사에서 연꽃과 연잎 을 8월에 채취하고, 뿌리는 11월에 채취하였다. 천의 염색이 잘 되기 위하여 전처리로 30분 동안 끓여서 호발(毫髮) 하였다(표 1, 표 2).

표 1. 염료추출 및 염색방법

연의 재료 및 양	연꽃 500g	연잎 600g	연근 200g
염료 추출 시간	100°C 30분	100°C 30분	100°C 30분
물의 양	6L	6L	6L
천의 재료	실크, 면, 광목, 모시, 삼베, 천의 무게 : 250g	실크, 면, 광목, 모시, 삼베, 천의 무게 : 250g	실크, 면, 광목, 모시, 삼베, 천의 무게 : 250g
염색 온도	45~50°C	45~50°C	45~50°C
염색 시간	30분	30분	30분
매염제 양	알루미늄 2%, 초산동 2%, 염화 제1철 2%	알루미늄 2%, 초산동 2%, 염화 제1철 2%	알루미늄 2%, 초산동 2%, 염화 제1철 2%
매염 온도	35°C	35°C	35°C
매염 시간	25분	25분	25분
수세	수세	수세	수세

표 2. 연의 염색 과정

염재	염액 추출	염색	매염		결과
 연꽃			알루미늄		
			초산동		
			염화 제1철		
 연잎			알루미늄		
			초산동		
			염화 제1철		
 연근			알루미늄		
			초산동		
			염화 제1철		

염색과정은 염색 -> 수세(水洗) -> 후 매염-> 건조의 순서로 하며, 염색방법은 먼저, 연꽃, 연근, 연뿌리를 채취하여, 그것으로부터 염료를 추출하고, 천의 염색을 진행한다.

색상의 다양한 발색과 색상 견뢰도를 위하여 매염제는 알루미늄(Aluminum), 초산동(Copper Acetate), 염화 제1철(Ferrous Chloride), 세 종류로 사용하였다. 염색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4, 표 5)와 같다.

표 3. 연꽃의 염색 색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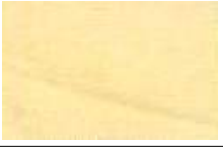


















구분	무 염색	알루미늄 염색	초산동 염색	염화 제1철 염색
실크				
	2.5Y 8/4	5Y 8.5/6	2.5Y 6/6	10Y 3/2
면				
	2.5Y 8.5/2	5Y 9/2	2.5Y 8/4	7.5Y 8/2
광목				
	10YR 8/2	2.5Y 8/4	2.5Y 7/4	7.5Y 8/2
모시				
	2.5Y 8.5/2	5Y 9/4	5Y 8/4	2.5Y 7/2
삼베				
	2.5 8.5/2	5Y 8.5/2	5Y 7/4	2.5Y 5/2

표 4. 연잎의 염색 색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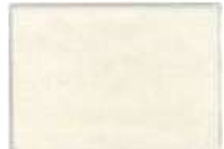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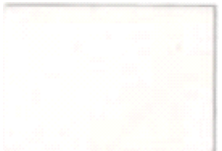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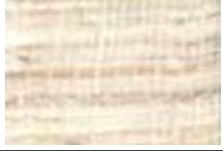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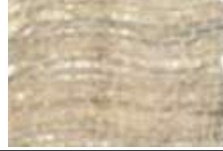
구분	무 염	알루미늄 염	초산동 염	염화 제1철 염
실크				
	5Y 9/2	7.5Y 9/4	5Y 7/6	5Y 5/2
면				
	5Y 9/1	10Y 9/1	5Y 9/4	5Y 8.5/1
광목				
	2.5Y 9/1	5Y 9/4	5Y 8/4	2.5Y 7/2
모시				
	5Y 9/1	10Y 9/2	7.5GY 9/2	2.5Y 8.5/4
삼베				
	2.5Y 8.5/2	7.5Y 9/2	2.5GY 8/4	2.5Y 6.4

표 5. 연근의 염색 색상표

구분	무 염	알루미늄 염	초산동 염	염화 제1철 염
실크				
	10YR 8/4	10YR 8/4	10YR 6/4	2.5Y 5/2
면				
	10R 9/1	10R 9/1	5Y 9/1	7.5YR 8/2
광목				
	10YR 8/2	10YR 8/2	2.5Y 8/4	10YR 7/2
모시				
	10YR 9/1	5Y 9/1	10GY 9/1	2.5Y 8/4
삼베				
	10YR 9/1	2.5Y 9/2	5GY 9/2	10YR 8/4

3. 연의 염색 결과 분석

연꽃, 연잎, 염근 염색의 매염제는 알루미늄 매염, 초산동 매염, 염화 제1철 매염을 사용하였으며, 천은 실크, 면, 광목, 모시, 삼베를 사용하였다.

1) 연꽃의 염색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 매염에서 색상은 2.5Y와 5Y의 옅고 낮은 노랑계열로, 명도는 8.5Y와 9의 높고, 채도는 2, 4, 6의 낮고 중간이 발색되었으며, 초산동 매염에서 색상은 2.5Y와 5Y 노랑계열로, 명도는 6, 7, 8로 높고, 채도는 4, 6의 대체적으로 낮게 발색되었으며 염화 제1철 매염에서 색상은 2.5Y, 7.5Y, 10Y의 노랑계열이지만 청회색이며 명도는 3.5, 7, 8 낮고 높게 나왔으며, 채도는 2 낮게 발색되었다.

2) 연잎의 염색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 매염에서 색상은 7.5Y와 10Y, 5Y의 옅은 노랑계열로, 명도는 9로 높게, 채도는 1, 2, 4 대체적으로 낮게 발색되었으며, 초산동 매염에서 색상은 5Y, 2.5GY, 7.5GY의 노랑과 녹색계열로, 명도는 7, 8, 9 높게, 채도는 6, 4 대체적으로 중간과 낮게 발색되었으며, 염화제1철 매염에서 색상은 2.5Y, 5Y의 노랑계열이나 녹색을 띄고, 명도는 중간단계로 5, 8.5, 7, 채도는 1, 2, 4 대체적으로 낮게 발색되었다.

3) 염근의 염색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 매염에서 색상은 2.5Y, 5Y, 10YR의 노랑과 붉은빛이 도는 노랑계열, 명도는 8, 9 높게, 채도는 1, 2, 4 낮게 발색되었으며, 초산동 매염에서 색상은 2.5Y, 5GY, 10GY, 10YR로 노랑, 녹색계열, 명도는 6, 8, 9 높게, 채도는 1, 2, 4 낮게 발색되었으며, 염화제1철에서 색상은 2.5Y, 7.5YR, 10YR의 노랑, 녹색계열로, 명도는 5, 7, 8 대체적으로 높게, 채도는 2, 4 낮게 발색되었다.

V. 시작품 제작연구

1. 제작배경

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을 받고 있다. 꽃은 예쁘기도 하지만, 향기가 있어서 아름다움에 멈추지 않고 꽃꽂이로서 그 만남 속에서 탄생하는 결과물은 또 다른 의미와 미적 세계 그 자체가 창작 의 혼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가치이다.

자연 속에서 자라는 꽃들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산천초목과 더불어 그 자연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 즐기던 인간은 자연의 일부를 자기의 생활주변, 실내공간으로 옮기려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갖게 하였다.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여 화병에 맞추어 꽃과 이야기를 나누어가며, 꽃은 그 과정에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표현이란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선택되는 소재를 섬유와 결합하여 화기디자인을 함으로써 한국적인 멋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전통적이면서 꽃 예술과 병행적으로 나아감으로써 현대의 심미적인 만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로부터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작품제작에 사용할 색상은 예로부터 불교에서 연은 길상의 의미로 일컬어지고, 청정과 풍요, 건강의 상징으로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으로 표현되고, 또한 식물이나 꽃을 통해 자연스럽게 좋은 심성을 갖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 속에 있는 연을 추출하여 온화하고 전통성과현대성이 조화 된 화기의 색상을 표현 할 가능성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

작품표현방법은 연꽃, 연잎, 연근에서 추출한 염료와 염색한 천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감의 천과 색채로 연꽃, 연잎, 연근 각각의 이미지에 맞춰 한국의 여성들이 즐겨 제작했던 조각 잇기를 통하여 현대적화기를 제작하여 꽃과의 조화에 있어서도미를 추구하도록 공간적인 형태의 시각적 예술품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작품제작의 계획에 있어서 연꽃염색에서 알루미늄 매염, 초산동 매염, 염화 제1철 매염의 작품을 각각 1점씩 하며, 연잎염색에서 알루미늄 매염, 초산동 매염, 염화 제1철 매염의 작품을 각각 1점씩 하며, 연근염색에서 알루미늄 매염, 초산동 매염, 염

화 제1철 매염의 작품을 각각 1점씩 하며 작품은 연꽃, 연잎, 연근에서 9작품을 제작한다.

표 6. 작품 제작 순서

연꽃	작품 1	알루미늄	염색매염
	작품 2	초산동	염색매염
	작품 3	염화 제1철	염색매염
연잎	작품 1	알루미늄	염색매염
	작품 2	초산동	염색매염
	작품 3	염화 제1철	염색매염
연근	작품 1	알루미늄	염색매염
	작품 2	초산동	염색매염
	작품 3	염화 제1철	염색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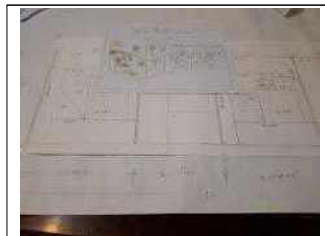
2. 작품제작과정

작품제작과정은 연의 염색재료로 직물과 색상의 조합과 배색을 채도와 명도로 결정하고 색 배색과 분위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품의 밑그림 형태로 염색한 천을 서로 조화롭게 배색하여 디자인을 표현하였으며, 디자인 형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염색이 완료 된 직물을 바느질 할 때 용이하도록 순수 전분 풀을 이용하여 다림질하였다.

푸새한 직물을 작품의 밑그림대로 재단하였다. 바느질과 자수에 있어서 전통바느질 방법인 싹술, 시침질, 흠질을 하고, 색실은 작품의 성격에 맞는 명주실의 색상을 이용하였다. 섬유로 된 작품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무 속 통을 제작하여, 전분 풀을 이용하여 뒷면에 접착심지로 배접하였다.



도 56. 색상 개발



도 57. 디자인 개발



도 58. 염색 천



도 59. 재단



도 60. 바느질



도 61. 나무 속 통



도 62. 배접

3. 시작품 설명

1) 연꽃(1)

원당 봉 산봉우리 정상분지에 있는 연꽃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피어있는 연꽃은 한여름 태양의 기운을 흠뻑 머금고, 앞에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와 함께 눈부신 햇살에 제주도의 자연은 신비로움까지 들게 한다.

연꽃은 염색하여 알루미늄 매염을 하였으며, 색상은 대체로 5Y 계열에 명도는 높고 채도는 낮은 노란 빛의 색상들로 연꽃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사각형을 중심으로 사각형의 구성 속에 서로 다른 천의 질감과 색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변화를 주면서 조각 잇기 하였고 연꽃의 붉은 색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붉은색의 명주실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수평으로 시침질하여 전체적으로 한국적이며 자연적이고, 현대적 정서가 느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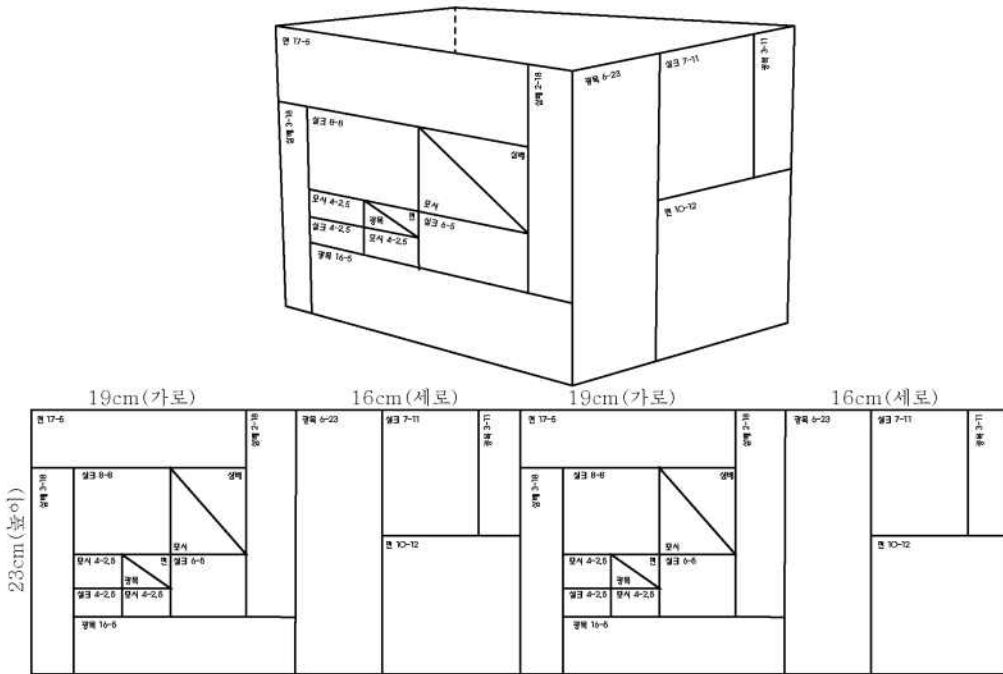


그림 1. 연꽃(1) 도면



작품 1. 연꽃(1)



- 용도 : 화기
- 크기 : 19cm × 16cm × 23cm
- 재료 : 실크,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
- 염제 : 연꽃
- 매염제 : 알루미늄
- 바느질 : 짚솔, 시침질, 홈질

2) 연꽃(2)

꽃잎에 둘러싸인 꽃은 오목한 꼴을 하고 있어서 가령 한 장의 꽃잎은 연한 빛깔이라 해도 그 오목한 부분에 들어온 빛은 서로의 색을 돋보이게 하고 한층 더 자연의 조화를 아름답게 만든다.

연꽃을 염색하여 동 매염을 하였으며, 색상은 Y 계열의 밝은 색상들로 발색되었다. 연꽃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기자기한 표현으로 조각 잇기를 하였고, 붉은색의 명주실로 하나의 둥근 형태의 울동감을 주면서 불교의 윤회로 연결된 인과 연이 되어 만남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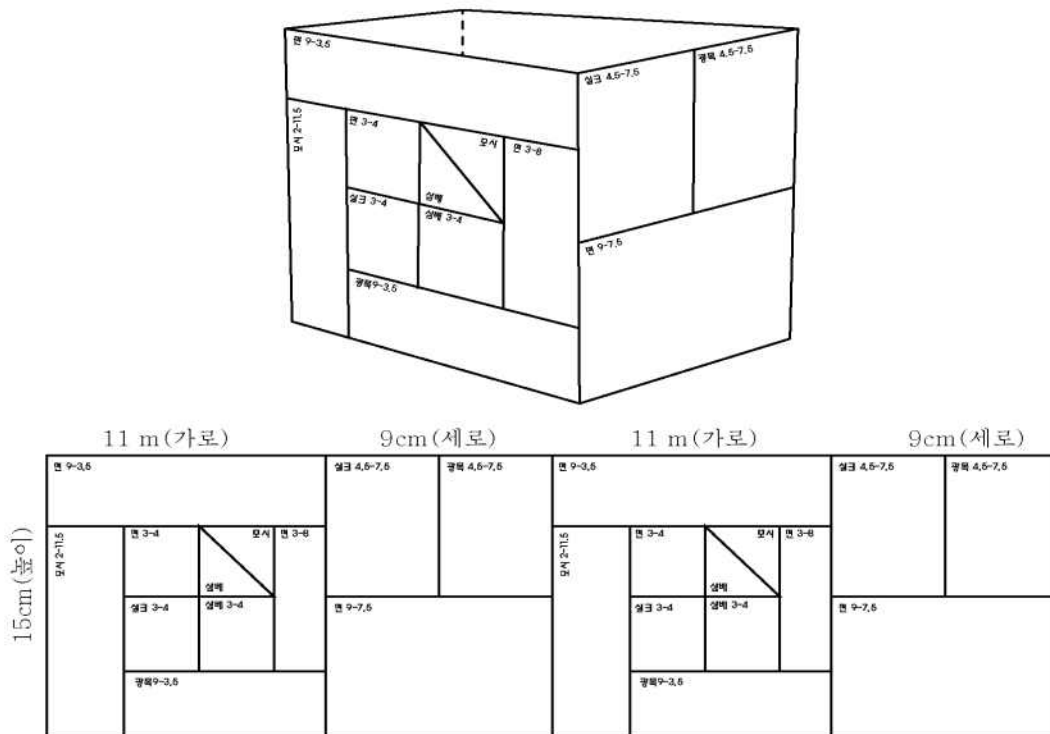


그림 2. 연꽃(2) 도면



작품 2. 연꽃(2)

- 용도 : 화기
- 크기 : 11cm × 9cm × 15cm
- 재료 : 실크,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
- 염제 : 연꽃
- 매염제 : 동
- 바느질 : 짚솔, 시침질, 홈질



3) 연꽃(3)

연꽃은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화려하고 은은하면서 깨끗하고 청순한 이미지로 유난히 아름다워 보인다. 자연의 맑고 깨끗한 색을 보며,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과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기운이 나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연꽃 염색의 철 매염한 천의 재료에 사각형 속에 채도가 낮은 Y계열의 색상으로 발색되었다. 조형화된 조각을 사선으로 이어주면서, 안정감이 들도록 명주실의 붉은 색으로 규칙적으로 동적이 느낌과 정적인 느낌이 어울려지도록 모시와 삼베에 시침질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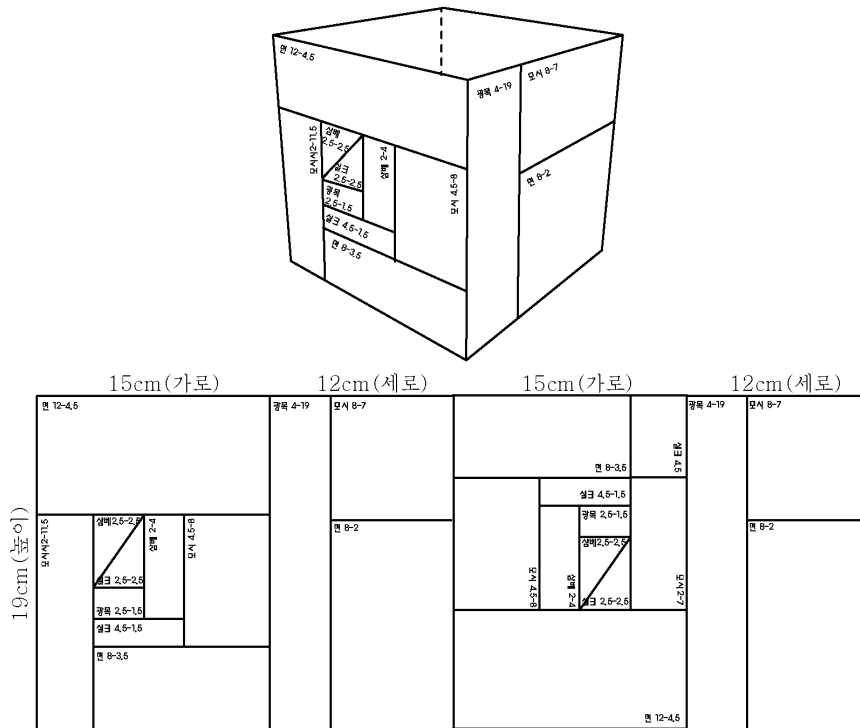


그림 3. 연꽃(3) 도면



작품 3. 연꽃(3)



- 용도 : 화기
- 크기 : 15cm × 12cm × 19cm
- 재료 : 실크,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
- 염제 : 연꽃
- 매염제 : 철
- 바느질 : 짚솔, 시침질, 홈질

4) 연잎(1)

잔잔한 물속에 조용히 물을 머금고 있는 둥근 미소의 연잎은 신성한 식물로써 제주 자연의 으뜸 들의 형상처럼 늘 자연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작은 울림에 귀 기울여 몰아일체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자연과 정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평온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연을 염색하여 알루미늄 매염을 하였으며, Y 계열인 노랑은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발색되었다.

연잎의 모습처럼 작은 직사각형의 틀에 물의 시원함처럼 서로 다른 천의 질감으로 연꽃잎 모양처럼 넓게 조각 잇기를 하였고, 푸른 잎을 표현하기 위하여 초록색 명주실로 모던한 느낌이 들도록 수평적으로 시침질하여 맑은 느낌을 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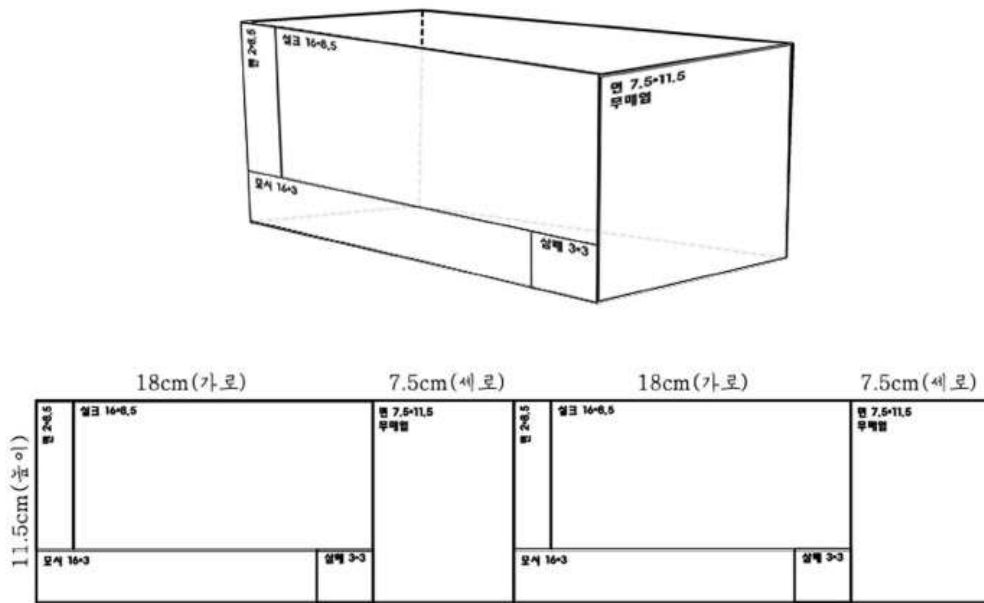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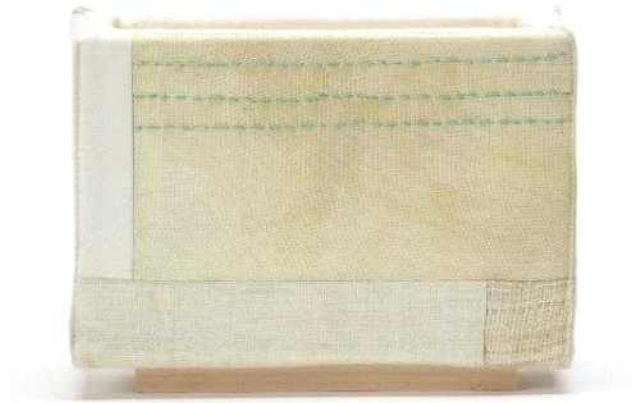


그림 4. 연잎(1) 도면



작품 4. 연잎(1)



- 용도 : 화기
- 크기 : 18cm × 7.5cm × 11.5cm
- 재료 : 실크,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
- 염제 : 연잎
- 매염제 : 알루미늄
- 바느질 : 짚솔, 시침질, 홈질

5) 연잎(2)

녹색은 우리에게 가장 본능적으로 자연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환경 친화적(Ecological)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원한 산들바람을 맞으며 한여름의 눈부신 햇살에 잎사귀들을 바라보는 것도 무척 싱그럽고 청량감을 더해준다. 특히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은 자연의 원색인 녹색을 빛이 땅에 닿아 물과 공기의 혜택으로 더욱 생기 있게 만든다.

화면구성은 연잎을 동 매염하여 5Y 계열과 GY 계열의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발색되었다. 또한 명주와 모시를 이으면서 자연스럽게 사각형의 화예장식으로 대비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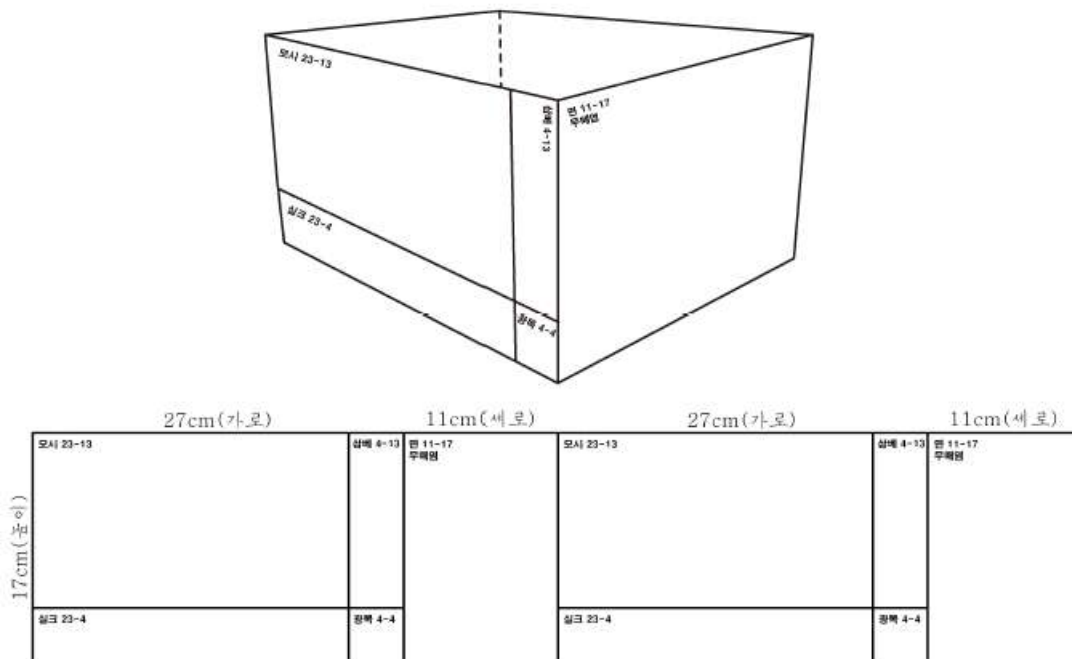


그림 5. 연잎(2) 도면



작품 5. 연잎(2)



- 용도 : 화기
- 크기 : 27cm × 11cm × 17cm
- 재료 : 실크,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
- 염제 : 연잎
- 매염제 : 등
- 바느질 : 짚솔, 시침질, 홈질

6) 연잎(3)

빗방울이 연잎에 잔잔하게 고이면, 연잎을 한동안 물방울의 유동으로 일렁이다가 얼마만큼 고이면 수정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 없이 쏟아버린다. 푸른 바다의 일렁이는 파도처럼 젊음과 신선함으로 식물의 성장을 나타낸다.

긴 직사각형의 틀에 연잎을 염색하여 철 매염으로 5Y 계열과 2.5Y 계열에 명도는 높고, 채도의 낮은 색상으로 발색되었다. 질푸른 바다의 연잎의 크고 수직과 수평으로 넓적하게 표현하면서 서로 다른 조각 천을 결합하여 녹색의 명주실로 표현하면서 시침질하면서 차분한 색상을 전체적으로 변화감과 모던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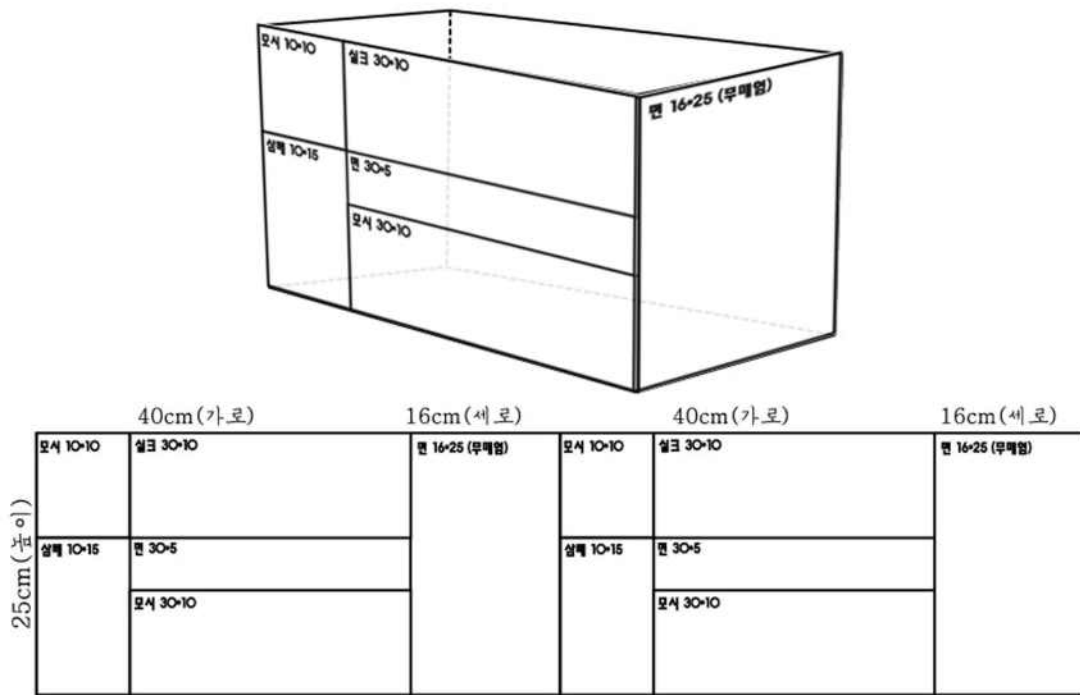


그림 6. 연잎(3) 도면



작품 6. 연잎(3)



- 용도 : 화기
- 크기 : 40cm × 16cm × 25cm
- 재료 : 실크,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
- 염제 : 연잎
- 매염제 : 철
- 바느질 : 싹솔, 시침질, 홈질

7) 연근(1)

가을은 풍요로움과 자연의 색깔은 형형색색으로 제 빛깔을 내듯 오묘함과 충만한 행복감을 느껴지게 한다. 연근은 가을이 되면 모든 곡식이 무르익듯이 갈색으로 영글어 따듯함과 편안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만든다.

연근을 염색하여 알루미늄 메염을 하였으며 YR계열의 명도는 높고 채도는 낮은 색상으로 발색되었으며 이러한 색상으로 심플하고 은은한 느낌을 표현하였고, 연근을 표현하기 위하여 뿌리의 모양처럼 길고 가늘게 직사각형의 형태 속에 천의 질감과 색상을 수직적으로 뻗어가는 형태로 조각 잇기를 하였고, 변화를 주면서 연근의 갈색색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밤색의 명주실로 생동감이 들도록 수직으로 시침질하여 같은 색상이 나도록 조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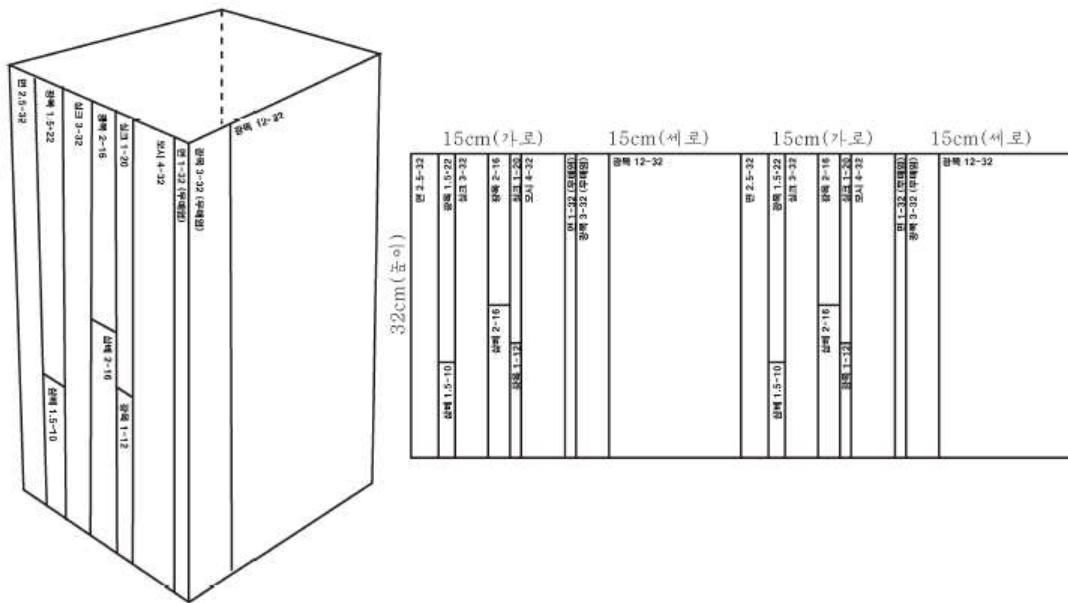


그림 7. 연근(1) 도면



작품 7. 연근(1)



- 용도 : 화기
- 크기 : 15cm × 15cm × 32cm
- 재료 : 실크, 포플린, 팡묵, 모시, 삼베
- 염제 : 연근
- 매염제 : 알루미늄
- 바느질 : 싘솔, 시침질, 홈질



작품 8. 연근(2)



- 용도 : 화기
- 크기 : 11cm × 11cm × 26cm
- 재료 : 실크,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
- 염제 : 연근
- 매염제 : 동
- 바느질 : 싹술, 시침질, 흠질

9) 연근(3)

항상 고고함과 여여함으로 우뚝 서 있는 연의 형상처럼 기다림과 부드러운 꽃과 잎들은 미소 지으면서 탄탄하게 영글어가는 삶에 자연의 아름다운 기운이 하나 되기를 희망하고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근을 염색하여 철 매염으로 채도가 낮은 YR계열의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상들로 발색되었다. 검소함과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 절제된 사각형태의 수직분할 전개하여 촉감과 양감을 서로 어울려 질 수 있도록 다른 천의 질감을 기하학적 형태로 변화를 주었고, 연근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밤색 실크 실로 수직선으로 시침질하여 탄생과 함께 생동감 있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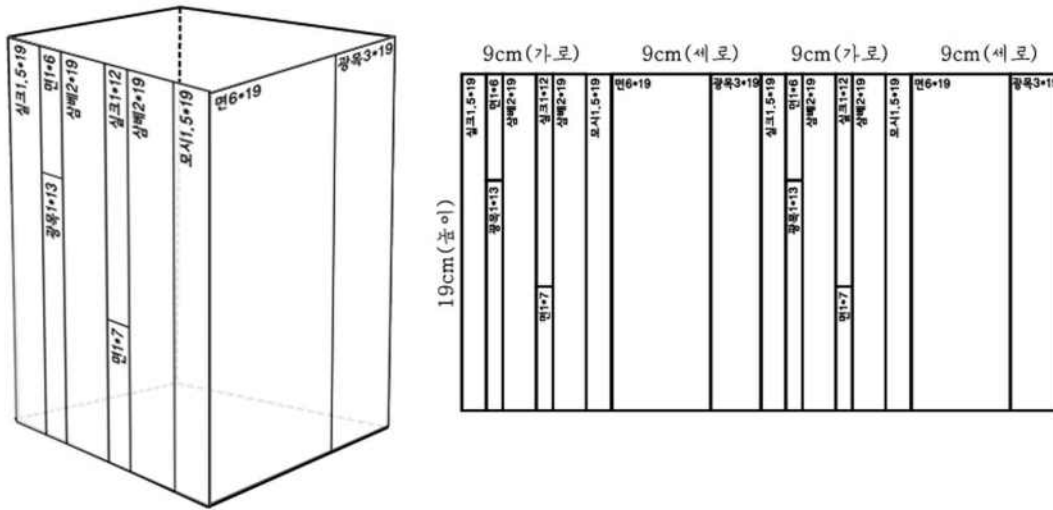


그림 9. 연근(3) 도면



작품 9. 연근(3)



- 용도 : 화기
- 크기 : 9cm × 9cm × 19cm
- 재료 : 실크, 포플린, 광목, 모시, 삼베
- 염제 : 연근
- 매염제 : 철
- 바느질 : 짚솔, 시침질, 홈질

VI. 결론

최근 현대 화기들은 표현의 한계,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화기들은 오브제(object)로 활용되며 한국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발전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표현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실질적이면서, 감상적인 목적으로 생활공간의 시각적, 장식적 표현물로 화기(花器)의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생활양식이 다양해짐으로써 더욱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실질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내소품 디자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꽃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연의 염색을 이용하여 색채를 개발함으로써 자연적이고 현대적 단순함이 있는 한국의 고유미를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화기를 통해 자연미를 표현하면서 디자인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기하학적 화기의 조형적 작품으로 디자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항상 깨끗하고 고귀한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신성시 여겨졌으며, 옛 부터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우주 그 자체를 의미하며, 연은 부위마다 불교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연의 씨는 천년이 지나도 심으면 싹을 띄우고 꽃을 피워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상징한다.

둘째, 연의 색상개발에 있어서 재료는 연의 꽃, 잎, 뿌리의 3가지를 사용하였으며, 천의 재료는 실크, 면, 광목, 모시, 삼베로 하였고, 매염제는 알루미늄, 초산동, 염화제1철을 사용하였다.

연꽃에서는 연꽃의 붉은색은 염색되지 않았고 알루미늄 매염에서 2.5Y와 5Y의 노란색계열의 색상이, 초산동에서 2.5Y와 5Y계열의 노란계열의 색상이, 염화 제1철 2.5Y, 7.5Y, 10Y계열의 청회색의 색상이 발색되었다.

연잎에서는 알루미늄 매염에서 5Y, 7.5Y, 10Y의 노란색계열의 색상이, 초산동에서 2.5GY, 7.5GY, 5Y계열의 초록빛을 띤 색상이, 염화 제1철에서 2.5Y, 5Y계열의 초록

빛을 띤 색상이 발색되었다.

연근에서는 알루미늄 매염에서 2.5Y, 5Y, 10Y의 노란색계열의 색상이 초산동에서 2.5Y, 5GY, 10GY, 10YR계열의 푸른빛을 띤 색상이, 염화 제1철에서는 2.5Y, 7.5YR, 10YR계열의 푸른빛을 띤 색상이 발색되었다.

셋째, 화기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화기의 형태는 연의 꽃, 잎, 뿌리를 주제로 하였고 꽃은 정육면체, 잎과 뿌리는 한국적인 조각잇기의 기법으로 직육면체로 하여 명주, 면, 광목, 모시, 삼베의 자연적인 색감과 각각의 재료에서 느껴지는 질감으로 한국적이며, 자연적인 화기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넷째, 이러한 화기디자인 개발은 꽃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복잡한 현대사회에 메마른 정서를 순화하는 잠재적인 가치를 통해 시각적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연적 재료인 연을 천에 염색하여 화기(花器)디자인을 연구(研究)한 내용으로 꽃과 어울릴 수 있는 더욱 좋은 화기디자인을 개발연구(開發研究)하는데 기초(基礎)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영기 (1991).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김옥광 (2007). 「옛 보자기의 멋」. (주) 두경프린텍.
- 김지영 김문집 (2001). 「규방공예」. (주)북21,컬처라인.
- 김현희 (2000). 「보자기」.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 박영애 (1990s). 「전통화예와 생활꽃꽂이」. 도서출판소망사.
- 이승철 (2001). 「자연염색 - 내손으로 만드는 자연의 색」. 학고재
- 하용득 (1986).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화훼 장식기사」. 도서출판인아

학위논문

- 박현영·김지희 (2001). “다정큼나무 염재의 발색효과와 고 건뢰도 염색”. 한국색채학회논문집
- 부혜선 (2015). “안식을 위한 베갯모 디자인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명희 (1985). “현대섬유예술의 종이작업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나 (2006). “자연염색을 이용한 화기디자인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표준색표집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3

불교와 연꽃

불교에서 연꽃의 의미